

■ 2025년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지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지정)
- 회의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요일) 10:30~13: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정경, 김희진, 부다혜, 이소연, 정세라, 피정훈

2025년도 문예기금 정시공모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지정) 사업은 예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해외레지던시 협력기관을 통해 예술가(기획자)의 창제작 및 국제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예술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지원 신청된 총 90건 중 행정결격 5건을 제외한 85건에 대해서 전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8개의 해외협력 기관들은 각 분야별로 문학 5개 기관, 시각예술 2개 기관, 음악 1개 기관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신청자들의 목표와 강점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분야별 특성에 따른 교류내용과 방식의 차이는 심의위원 전원이 의견을 교환하며 심사숙고하였습니다.

3개 분야 전문가들로 진행된 본 사업의 심의기준은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40%,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20%를 바탕으로 지원자 선정과 예산 배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지원 신청자들의 뛰어난 역량과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분야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원적 시도가 보편화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문학분야는 지원자들 중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을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작가와 작품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작가 개인의 역량 및 작품의 국제적인 파급력, 가능성 등도 함께 평가하였습니다.

시각예술분야는 관행을 탈피한 실험적인 사업계획들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레지던시 협력기관의 성격과 작가의 작품 간의 개연성, 그리고 성과의 파급력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음악분야는 해당 기관이 1곳(스웨덴 EMS)인 관계로, 지원 작가들의 기존 활동 성과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의 프로젝트 수행의 적합도와 그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해당 해외레지던시 협력기관에서 파급효과와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심의였습니다.

저희 심의위원들은 본 사업이 한국의 예술가와 기획자가 국제적인 예술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난 역량과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제약과 분야별로 제한된 협력 기관 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선정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예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해외레지던시 협력기관과 지원 예산 규모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